



보도자료

담당자 변혜원 연구위원(3775-9027)

보도 2024. 12. 12(목) 15:00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매수 총 4매

보험연구원 · 한국FP학회,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세미나 개최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을 지원하여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개선”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요 아젠다의 단계적, 지속적 실행 필요”

- 보험연구원과 한국FP학회는 금융혁신과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과제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12월 12일(목) 오후 2시 『금융혁신: 소비자편익과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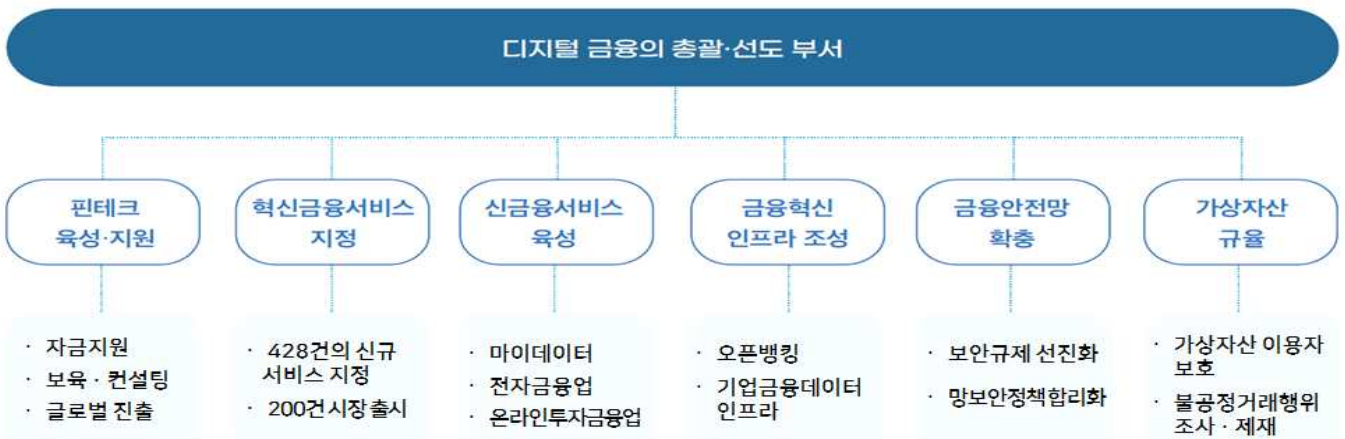
- 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14:00 ~ 14:15	(개회사) 차경욱 (한국FP학회 회장) (환영사)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14:15 ~ 15:40	(기조발표) 디지털금융정책관 5년의 성과와 과제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발표 1)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포용 사례와 활성화 방안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국내외 인슈어테크와 보험사 디지털전환 트렌드 김규림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상무)
16:00 ~ 16:50	(종합토론) 좌장: 박광수 (동익대 교수) 토론: 김소연 (서울대 교수),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기조발표) 전요섭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금융 당국의 디지털 금융정책에 대해 그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다름

- (디지털금융정책 성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핀테크 활성화, ②신금융서비스 육성, ③금융안전망 확충, ④가상자산 규율 등의 디지털 금융정책을 실시함
 - 구체적으로 ①‘핀테크 혁신펀드’(총 1조원 규모) 조성,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2,200억)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428건 지정·200건의 신규서비스 출시)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②오픈뱅킹(’19.12월)·마이데이터(’21.2월)를 도입하여 신금융서비스를 육성해왔고, ③보안규제 정비, 보안 거버넌스 개선(자율·책임 원칙으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④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24.7.19일 시행)하여 가상자산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음

<디지털금융정책관의 주요 기능>



- (디지털금융정책 과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①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②마이데이터 2.0 추진 및 금융권 AI 활성화를 통해 신금융서비스를 촉진하며, ③유연한 망분리 정책으로 금융보안을 강화하고, ④가상자산 관련 단계적인 추가입법으로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예정임

○ (주제발표 1)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포용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 (지속가능한 금융포용)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정책대응은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으나, 정책자금 수혜자의 쏠림현상, 재원 확대 제약에 따른 지속가능성 여부 등이 문제로 제기됨
 - 정부정책의 신속성이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 사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내대출, 급여선지급, 선정산 사례들은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금융포용의 가능성을 보여줌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의 국내 사례>

구분	서비스 내용	장단점	국내 사례
근로자대출 (사내대출)	핀테크 회사와 고용주 간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급여에서 대출상환금을 직접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높은 대출 승인율, 낮은 금리, 상환 용이성, 근로자 생산성 개선, 이직률 감소 • (단점) 편리성에 따른 과도한 대출 	샐러리파이
급여선지급	근로자들의 원하는 시점에 급여일 전 급여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낮은 금리, 신용등급 영향 없음, 근로자 생산성 개선, 이직률 감소 • (단점) 근로자 부담비용이 커질 위험, 과소비 조장,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질 가능성 	페이워치
(소상공인) 선정산	신용카드 매출과 배달주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을 익일 입금해 주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신속한 현금 확보, 담보 불필요,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이용 가능 	얼리페이

-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금융포용을 위해, 제도 및 절차 분야의 지원, 투자 촉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핀테크 활용 금융포용 활성화를 도울 필요가 있음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금융포용서비스 제공 핀테크 회사에게 사업개시를 위한 특례나 면허취득 요건 완화 등 절차적 혁신을 통해 지원
 - 민간부문의 금융포용 투자 기준 마련, 민간의 금융포용사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포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 금융포용을 수행하는 핀테크 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 주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주제발표 2) 김규림 삼성 KPMG 경제연구원 상무는 ‘국내외 인슈어테크 및 보험사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을 제안함

- (AI 기반 인슈어테크 부상)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최근 인슈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AI를 활용한 글로벌 인슈어테크는 선전 중임
 - 국내 K-Fintech 30에 선정된 인슈어테크 기업도 AI 등을 활용하며 스케일업 모색 중

< 글로벌 인슈어테크 투자 및 주요 기업 투자 사례 >



자료: Pitchbook, 삼성 KPMG 경제연구원

기업	AI 활용	사업 분야	투자규모 (USD, Millions)
Corvus (미국)	✓	사이버위험관리 특화 보험, 2024년 1월 Travelers Insurance가 인수	427.0
Kin (미국)		주택 및 건물 보험 특화	151.7
Cover Genius(미국)	✓	XCover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 e-커머스 기업의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 및 보증 상품을 제공(임베디드 보험)	80.0
Perfios(인도)	✓	금융 기관을 위한 실시간 신용분석, 언도러이팅 솔루션 제공 등	80.0
Hyperexponential (영국)	✓	인도네시아 워크플로우 최적화 및 Phing 모델 제공	73.0
Clearcover (미국)	✓	'Choice'를 통해 차량용 보험서비스 임베디드 솔루션 제공	55.0
Element (독일)	✓	B2B2X 화이트 라벨 보험	54.4
Ooala (필리피나)	✓	B2B2C 모델로 여행, 건강, 자동차 보험 등 제공	47.0
Honeycomb Insurance (미국)	✓	B2B2C 모델로 주택 및 상인용 부동산 관련 보험 제공	36.0
Peak3 (홍콩)	✓	SaaS 기반 보험사 대상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듈식 보험 코어 및 유통 시스템 제공	35.0

- (보험업 디지털 전환 트렌드) 글로벌 보험업은 ① 고객 변화에 따른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② 헬스케어 및 모빌리티 등 보험업의 외연 확장, ③ 임베디드 보험 등 내재화, ④ 디지털 채널과 기술 내재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고도화 등이 진행 중
- (보험업의 아젠다와 대응 방안)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① 고객·상품·접점을 재정의, ② 예측 기반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③ AI와 데이터 기반 조직과 일하는 방식 재구조화, ④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한 유망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성장 병행이 필요함
 - 소비자보호 기조 하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업의 외연 확장과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수반될 필요가 있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